

東中國海에서 中國 海面漁撈漁業의 展開와 地域漁業의 再編

金 大 永*

The Development of China's Marine Fisheries and Reorganization of Region Fisheries in the East China Sea

Kim, Dae-Young

目 次

I. 머리말	IV. 중국 해면어로어업의 당면과제
II. 동중국해에서 중국 해면어로어업의 성장	1. 개인경영 진전에 따른 구조적 문제
1. 중국 어업의 발전구조	2. 어업자원의 악화와 관리체계의 한계
2. 동중국해에서의 어업전개 실태	3. 新어업질서에 따른 생산력 확대 제한
3. 어업경영의 존립조건	V. 맺음말
III. 어장이용 상황과 지역어업의 재편	참고문헌
1. 어업자원관리의 동향	Abstract
2. 어장이용 상황과 국별 이해관계	
3. 국제어업질서의 구축과 영향	

Key words : Chinese Fisheries, EEZ System, New Fishery Order, Resource Management, Fishery Reorganization

I. 머리말

중국 어업은 개혁·개방정책에 의한 어업증산정책에 힘입어 1980년대에 들어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1989년 이후 세계 제1위의 어업강대국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경제발전이 안정적 궤도로 접어들었던 1990년대에는 어업발전의 템포가 더욱 가속되고 있다.

중국과 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일본 어업도 동중국해 및 황해에서 동일한 자원이용을 둘러싸고 조업경쟁을 전개하여 왔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구조를 가진 중국어업의 신장에 따라서 정체 및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에서 어업은 아직까지 산업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 한국학술진흥재단 박사후과정 kimdy993@yahoo.co.kr

있으며 그만큼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중국 어업발전의 이면에는 많은 제한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적인 어획경쟁이 치열해지고 개인경영의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저서어종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에 따른 임금 급등과 비용상승은 어업경영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더해 1994년 유엔해양법의 발효에 의해 한중일 3국은 EEZ체제를 확립하였고, 2국간 어업협정이 개정 및 체결됨에 따라 그 동안 생산력 확대 노선을 지향하였던 중국 어업은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동중국해에서 중국 해면어로어업의 전개과정 및 특징을 고찰하고, 동북아 수역의 지역어업 재편에 따른 영향과 이해관계를 분석하여 중국 해면어로어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동중국해에 초점을 두어 중국어업을 분석하는 이유는 동중국해가 중국의 어업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수역이며,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어장으로서 상호관련을 가지는 곳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최근 EEZ체제의 성립에 따라 수역분할 및 조업조건을 둘러싸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따라서 동북아 수역의 최대 어업국이며 우리나라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중국 어업의 현황을 정리하는 것은 향후 전향적인 국제어업관계의 구축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어업관계를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도 기여가 될 것이다.

구체적인 검토내용은 ①동중국해에서 중국 해면어로어업의 지역별 동향, 어업 전개과정, 어업경영의 존립조건을 고찰하는 한편, ②어업자원관리의 특징과 어장이용, EEZ체제에 따른 이해관계를 분석하며, ③이상을 통해 도출된 중국 해면어로어업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간단히 언급한다.

Ⅱ. 동중국해에서 중국 해면어로어업의 성장

1. 중국 어업의 발전구조

중국은 1978년 중앙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회 총회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경제사회 전반에서 큰 변화를 보여 왔다. 개혁·개방은 개혁을 통한 종래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 활성화시키는 경제개혁과 수출에 의한 외화획득 및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대외개방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경제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어 1978~98년 동안 국내총생산은 평균 9.7%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그리고 중국 경제는 1997년 국별 수출순위에서 세계 9위를 차지하였고, 아시아 경제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로 성장하였다¹⁾.

1) 日本興業銀行産業調査部, 「中國産業」, 日本經濟新聞社, 1999, pp. 11~16.

한편, 어업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인 시장경제의 이행은 1985년 3월 공산당 및 국무원에 의한 「경제정책을 완화하고 수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시」와, 이와 동시에 실시된 수산물 가격의 전면자유화가 시작되면서부터이며, 그 이후 급속히 발전하여 왔다.

어업발전의 배경으로서는 국영기업에서 개인경영으로 생산체계의 변화, 수산물 유통 및 가격제도의 자유화, 국민경제의 발전과 소득증가에 따른 국내수산물 소비의 확대와 가격상승 등을 들 수 있다²⁾. 또한 어업 합작사업의 장려를 통한 생산기술의 도입과 수산물 수출 확대도 어업발전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표 1> 중국의 어업생산 추이

년도	전체 어업 생산 (만톤)	내수면어업		해면어업								
		양식 (만톤)	어로 (만톤)	양식 (만톤)	어로 (만톤)	해역별 (만톤)					어로어선	
						발해	황해	동해	남해	기타*	동력어선 (千척)	척당평균 마력
1980	450	90	34	44	281	29	52	142	55	4	50	66
82	516	121	36	50	310	29	57	159	62	2	80	49
84	619	181	44	63	331	32	61	165	73	1	112	40
86	824	295	53	86	390	39	65	180	96	9	164	35
88	1,061	390	65	143	463	47	85	192	128	12	218	35
90	1,237	445	78	162	551	52	109	207	162	22	244	38
92	1,558	534	90	243	691	81	121	231	207	52	244	44
94	2,143	785	117	346	896	91	149	328	260	69	259	44
96	2,813	1,094	160	438	1,122	127	275	434	319	95	-	-
98	3,907	1,322	228	860	1,497	162	343	554	344	95	283	57

* 원양해역을 의미.

자료: 中國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중국의 전체 어업생산은 1980년의 450만톤에서 1998년에는 3,900만톤으로 8.7배의 급격한 증가를 보여왔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증가추세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표 1). 1998년의 부분별 어업생산을 1980년과 비교하면, 해면어어가 5.3배, 내수면어로는 6.7배인 것에 비해, 해면양식과 내수면양식은 각각 19.5배, 14.7배로 높은 증가를 보였다. 그 결과 1980년 어업총생산의 62%를 차지하였던 해면어어가 1998년에는 38%로 낮아졌고, 반대로 양식업은 30%에서 56%(해면10%→22%, 내수면20%→34%)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중국어업은 양식업의 확대(특히 내수면양식)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점이 특징이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업구조와 비교하더라도 커다란 차이점이다³⁾.

해면어로어업은 비록 그 비중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최대의 생산을 기록하고 있다. 1980년은 281만톤에서 1998년에 1,497만톤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1990년대 들어서 증가

2) 地域漁業學會編, 「漁業考現學-21世紀への發言」, 農林統計協會, 1998, pp. 56~58.

3) 중국에서는 내수면어업(어로, 양식)의 발전할 수 있는 자연적 조건(호수, 강)이 구비되어 있으며, 또한 담수어류에 대한 폭넓은 수요가 있음을 반영한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⁴⁾. 해역별로는 모든 해역에서 어획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역의 면적이 좁고 폐쇄적인 발해 및 황해에서의 어획증가가 낮으며, 또한 어획이 가장 많은 동중국해에 비해서 남중국해와 원양어장이 현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해면어로어업의 발전은 동력어선의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선 척수는 1980년대의 증가추세에서 1990년 초반 약간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1998년에는 28만척으로 증가하였다. 척당 평균마력은 1980년대 중반 일시적으로 정체하였지만, 1990년대에는 다시 증가하여 어업생산력의 증대로 나타났다⁵⁾. 1998년의 시점에서 200마력(대략 60~70톤) 이상의 어선은 전체의 7.9%에 불과하지만, 척수로서는 22,357척(생산어선은 20,884척)이며, 외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600마력 이상을 한정하더라도 1,997척(생산어선 1,832척)이나 된다⁶⁾.

2. 동중국해에서의 어업전개 실태

1) 지역별 어업 특징

동중국해는 양자강 하구에서 대만해협 남단에까지 이르는 수역이며, 어장생산성이 높고 자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어업이 발전하여 왔다. 어업구역은 연안어업구, 근해어업구, 외해어업구, 대만어업구로 구분된다⁷⁾. 즉 조업금지선 내측이 연안어업구, 조업금지선에서 수심 80m까지(대체로 마력제한선)가 근해어업구, 마력제한선 외측이 외해어업구, 대만해역과 주변해역이 대만어업구에 해당한다. 주요어장은 근해에는 長江口어장, 舟山어장, 魚山어장, 溫臺어장, 風東어장, 風中어장, 風南어장, 臺北어장, 臺東어장이 있으며, 외해에는 沙外어장, 江外어장, 舟外어장, 魚外어장, 溫外어장, 風外어장이 있다(그림 2참조).

〈표 2〉는 동중국해의 해면어로어업 상황을 지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우선, 어업노동력은 1985년 93만명에서 1998년 118만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에서 43%로 감소하였다. 동중국해는 어로어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전업어업자가 겸업어업자에 비해서 많고 증가율도 높다.

어선세력(동력어선)은 同 기간에 6만척에서 12만척으로 증가하였는데, 1998년에 전국 어선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척수 49%, 톤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600마력 이상이 819척, 200~599마력이 11,814척으로 규모가 큰 어선의 약 50%가 동중국해에서 조업하고 있다⁸⁾. 지역별로는 福建省과 浙江省이 어선 척수가 많으며, 상대적으로 江蘇省과 上海市는

4) 중국은 1997년부터 통계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데, 그 전후의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1996년 이전에도 新통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해면어업의 생산량은 평균 11% 증가하였다.

5) 1980년대 후반 어선 척수의 정체는 1989년 천안문 사태에 의한 개혁·개방정책의 일시적 중단, 경기 과열에 따른 국가경제가 조정기에 들어선 것과 관련하며, 그리고 석유를 위시한 어업기자재의 가격상승, 자원감소에 따른 어업생산력의 규제 등이 배경으로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시적인 마력수의 감소는 개인경영의 확대에 따라 소규모 어업자들의 신규참여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6) 農業部漁業局, 「中國漁業統計年鑑 1998年」, 1999.

7) 日中漁業協會, 「中國の海區別漁業資源及び漁業の概要」, 1991, pp.29~38.

8) 1998년 전국어선에서 600마력 이상의 규모가 1,832척, 200~599마력이 19,052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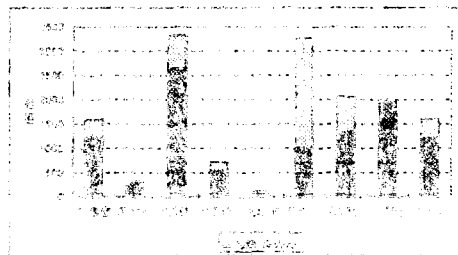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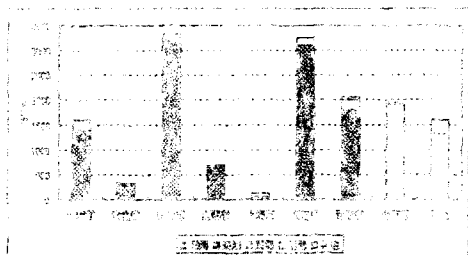
中日關係發展對 中國 漁業漁獲總量與 種類及 地產漁獲의 影響

표 2) 1985년부터의 지프별 조업어업 수어

		1985	87	88	90	91	92	93	94	95	98년
전국	오징어류 (단종)	172	210	218	228	237	239	251	267	271	274
	오징어류 (원종)	183	196	294	244	243	244	252	259	276	223
	아오징어 (단종)	349	432	504	551	610	691	767	892	1,027	1,437
	아오징어 (원종)	26	22	27	23	25	23	30	36	37	39
상해	오징어류 (단종)	83	102	105	107	104	117	118	113	122	116
	오징어류 (원종)	60	91	102	107	101	98	101	100	114	118
	아오징어 (단종)	180	202	216	250	255	278	313	408	492	614
	아오징어 (원종)	23	28	21	21	27	22	21	25	29	29
안둥성	오징어류 (단종)	-	-	12	14	13	11	11	-	-	11
	오징어류 (원종)	-	-	13	21	7	2	6	15	14	11
	아오징어 (단종)	-	-	61	20	21	11	91	-	-	11
	아오징어 (원종)	-	-	12	10	14	10	24	-	-	11
산둥성	오징어류 (단종)	-	-	12	11	13	11	11	-	-	11
	오징어류 (원종)	-	-	22	22	15	12	11	-	-	11
	아오징어 (단종)	-	-	228	224	235	237	211	-	-	211
	아오징어 (원종)	-	-	40	27	31	26	21	-	-	21
허베이성	오징어류 (단종)	-	-	31	25	11	11	107	102	102	102
	오징어류 (원종)	-	-	11	17	15	21	21	-	-	21
	아오징어 (단종)	-	-	21	21	21	21	21	-	-	21
	아오징어 (원종)	-	-	21	21	21	21	21	-	-	21
허난성	오징어류 (단종)	-	-	21	21	21	21	21	-	-	21
	아오징어 (원종)	-	-	21	21	21	21	21	-	-	21

주: 오징어류()는 원종과 단종 구분하지 않음.

출처: 漁業部漁業局, 「中國漁業統計1989-90年」, 「中國漁業統計年報1998年」.



주: 단종=원종+원종

출처: 漁業部漁業局, 「中國漁業統計年報1989-90」.

(표 1) 1992년 지역별의 조업어업 어종별 어업수선

단종.

다음으로 동중국해에서의 어획량을 보면, 1955년 138만톤에서 1992년에는 212만톤으로 36%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다른 해수의 어획량에 비해 전량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은 15%까지 1%로 낮아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중국해 10만톤의 어획량이 많고, 그다음 남중국해(황해와 제주도 남부)가 5만톤으로 양다. 동중국해의 어획량(양자총량)은 1955년 138만톤으로 1992년 212만톤으로 36%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다른 해수의 어획량에 비해 전량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은 15%까지 1%로 낮아지고 있다.

있고, 외해가 주된 어장으로서는 다양한 어업이 존재하며, 동중국해의 어장이용이 가장 높다 <그림 1>.

한편, 척당 평균어획량(생산성)은 1985년 28톤에서 1990년 21톤으로 낮아졌지만, 그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며 1998년에는 53톤이 되었다.

2) 해면어로어업의 생산력 확대 과정

<표 3>은 동중국해의 해면어로어업의 동향을 어종별, 주력계층별, 어업별로 살펴본 것이다. 전체 어획량은 1985년 168만톤에서 1990년 230만톤, 1995년 482만톤, 1998년에는 614만톤으로 급증하였다. 어종을 부어(중상층어)와 저어(중하층어)로 나누면, 양 어종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부어의 증가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어장별로는 근해와 외해 모두가 증가하고 있지만 외해의 증가율이 높다⁹⁾. 또한 어업생산을 국영기업과 대중어업(개인경영)으로 나누면, 대중어업의 어획증가가 현저하며 중심적인 생산담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국영기업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표 3> 동중국해의 어업생산 추이

(단위 : 만톤)

년도	어획 합계	어 종 별		어 장 별		주력계층별		어 업 별				
		부어	저어	근해	외해	국영	대중	저인망	선 망	정치망	유자망	낚 시
1985	168	36	132	146	22	32	104	44(26)	47(28)	47(28)	13(8)	4(2)
86	182	50	132	166	16	38	105	57(31)	42(23)	53(29)	12(7)	3(2)
87	202	66	136	184	18	40	126	62(31)	47(23)	60(30)	14(7)	4(2)
88	203	39	164	185	18	32	128	59(29)	37(18)	59(29)	20(10)	3(2)
89	216	61	156	162	54	40	162	71(33)	36(17)	64(30)	16(7)	3(1)
90	230	102	128	165	64	42	161	87(38)	34(15)	66(29)	16(7)	3(2)
91	255	116	139	163	92	45	189	99(39)	27(11)	70(27)	18(7)	3(1)
92	278	123	155	167	111	37	229	108(39)	24(9)	69(25)	18(7)	3(1)
93	313	137	177	169	144	34	294	146(47)	24(8)	88(28)	20(6)	3(1)
94	403	175	228	210	194	34	388	140(35)	16(4)	105(26)	25(6)	5(1)
95	482	238	244	226	255	36	462	258(54)	29(6)	120(25)	32(7)	12(2)
98	614	179	436	298	316	-	-	323(53)	29(4)	165(27)	48(8)	12(2)

주: ()내는 어획합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임.

자료: 農林部 東海區漁政漁港監督管理局 東海區漁業指揮部, 「十周年專集 1987~97年」 農業部漁業局, 「中國漁業統計年鑑 1998年」

다음에서 어업별로 살펴보면, 주요어업은 저인망, 선망, 정치망, 유자망, 낚시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인망이 주력업종이며 어획증가가 현저하다. 동중국해의 어획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0%에서 50%로 높아졌다¹⁰⁾. 동중국해의 저인망은 쌍끌이·외끌이와 새우트롤로 나뉘어진다. 쌍끌이는 1990년대 황해에서 멸치를 대상으로 중층어법을 채용하면서 발전하였다. 대중어업의 어선규모는 90~110톤이며 20명이 승선하는데, 1995년 시점에서 동중국해에는 약 3,500통

9) 마력제한선을 기준으로 내측은 근해, 외측은 외해로 나뉘어진다. 600마력 이상 어선은 중앙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내해에서 조업할 수 없지만, 600마력 미만의 어선은 근해와 외해에서도 조업할 수 있다.

10) 동중국해의 중국어선 현황에 대해서는 日本長崎大學 片岡千賀之교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이 있으며, 연안과 근해에서 조업하고 치어도 어획하기 때문에 자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 끝이는 약 5,000척이 조업하고 있으며 福建省과 浙江省에 많은데 魚價가 높은 저어가 중심이며 오징어도 어획한다. 새우트롤은 약 8,000척이 浙江省에서 주로 조업하는데 효율성이 높다.

저인망이 주력업종인 이유는 저층·중상층 어법을 겸용함으로써 저어와 부어를 어획하는 어법의 탄력성, 집단조업을 통한 어장이용의 우위성,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저어의 독점공급, 타 어업보다 저비용 및 효율적 어법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어획량이 많은 업종은 정치망이며 어획은 증가추세에 있다. 동중국해의 어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30%로 안정적이며, 주로 근해(연안역)에서의 조업한다.

선망의 어획추이는 감소경향이며 전체 어획에서 점하는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 1995년 시점에서 등선이 부속된 선망은 200통, 그렇지 않은 선망은 1,000척이 있다. 선단은 본선 300~400톤, 어담 및 등선 2척, 운반선 1~2척으로 구성된다. 정어리, 멸치, 고등어, 가라지 등의 부어를 어획하며, 가라지(전갱이 일종)의 생산은 복건성에 많다. 선망의 어획은 감소하고 있고 부어 일부 만 어획하고 있기 때문에 부어의 어획증가는 선망 이외의 업종, 특히 저인망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¹¹⁾.

마지막으로 유자망과 낚시도 안정적인 어획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어획비중은 낮다. 1995년의 어선세력은 유자망 약 15,000척, 낚시 약 2,500척이다.

한편, 주요어종의 어획동향을 살펴보면(표 4), 과거에는 부세, 참조기, 갈치, 갑오징어가 동중국해 4대 어종으로 유명하였지만 지금은 급격히 감소한 상태이다. 현재 어획량이 많은 어종은 갈치, 고등어, 가라지, 병어, 새우·게류 등이며, 특히 갈치와 가라지는 전국 생산의

<표 4> 동중국해의 주요어종별 어획추이

(단위 : 천톤)

년도	합계	부세	참조기	갈치	말뚝치	준치	갯장어	고등어	가라지	멸치	삼치	병어	오징어류	해파리	새우·게	기타
1985	1,683	20	7	360	138	12	16	151	-	-	23	48	27	5	339	537
86	1,819	10	8	340	192	9	25	188	83	-	24	51	20	3	368	498
87	2,019	7	5	320	227	6	29	279	153	-	22	63	22	5	374	507
88	2,028	5	10	294	110	9	29	297	124	-	25	42	19	8	442	614
89	2,160	2	4	327	215	6	29	223	103	5	24	42	21	6	434	719
90	2,297	2	9	387	179	9	38	251	135	1	40	50	29	9	408	750
91	2,549	2	17	453	124	9	43	353	198	18	49	59	25	11	468	720
92	2,781	3	24	492	25	8	48	339	213	6	35	39	31	4	526	988
93	3,128	3	26	500	4	8	60	297	239	32	30	56	64	27	546	1,236
94	4,032	9	50	654	4	12	81	355	172	59	35	74	121	17	884	1,505
95	4,819	24	76	849	2	18	105	404	221	33	52	134	142	46	952	1,761
98	6,146	10	179	805	67	20	-	170	222	321	145	190	138	4	1,383	2,453

자료 : <표 3>과 같음

11) 선망이 미발달한 이유는 과도한 노동력이 필요하고, 대상어종의 魚價가 낮으며, 초기 투자자본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金大永·片岡千賀之, 「東シナ海·黃海における國際的漁業再編」, 長崎大學, 1999, p.132.

80~90%가 동중국해에서 어획된다.

부어에서는 고등어, 가라지, 병어, 삼치, 멸치 등이 어획되는데 고등어, 가라지, 멸치는 어획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원상태도 양호하지만, 삼치, 병어에서는 어체가 소형화되고 있다¹²⁾.

저어에서는 갈치, 새우·게, 말쥐치, 오징어류, 갯장어, 참조기, 해파리 등이 어획되지만, 1990년대에 말쥐치가 격감한 대신에 갈치, 참조기, 갯장어, 오징어류, 새우·게 등이 증가하고 있다. 저어는 전반적으로 자원감소 및 어체 소형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어종구성의 변화, 어장확대로 보전하고 있는 것이다.

3. 어업경영의 존립조건

동중국해 전체의 어업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舟山지역을 사례로 분석한다¹³⁾. 舟山지역은 행정구역상 절강성에 포함되며 동중국해의 중앙에 위치한 1,33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이다. 북위 29도 30분~31도에서 동경125도 이서가 舟山어장, 이동이 주외어장이며, 예전부터 어업이 성행하였고 지금도 중요한 어업지역의 하나이다. 저인망이 주요한 어업이며, 어업생산은 중국 해면어업에서 10%, 동중국해의 전체에서도 20%나 차지한다.

〈표 5〉 주산지역의 어촌경영

년도	어업상황				어촌경영수지(백만원)				
	어선세력(척)		어획량 (천톤)	평균어가 (元)	어업 수입	어업 지출	어업순 이익	1인당 입금(元)	어업 이익률(%)
	척수	평균톤수							
1985	9,091	25.8	369	1,031	353	138	190	2,407	53.8
86	9,862	26.0	394	1,114	404	169	208	2,847	51.5
87	10,140	26.4	407	1,824	687	259	390	4,780	56.8
88	10,168	28.0	414	2,012	744	303	397	4,587	53.4
89	10,229	27.8	397	2,143	761	437	276	3,223	36.3
90	10,427	27.1	440	2,397	1,006	512	381	4,503	37.9
91	11,982	27.9	493	2,686	1,221	625	448	5,339	36.7
92	12,005	32.0	511	2,978	1,398	769	452	5,360	32.3
93	11,816	35.3	536	3,725	1,831	1,029	621	7,154	33.9
94	11,436	39.4	733	4,555	3,052	1,748	678	10,818	22.2
95	12,232	48.3	889	4,717	3,751	1,957	1,111	13,365	29.6
96	10,024	50.9	961	4,339	3,806	2,305	1,074	12,909	28.2

자료 : 舟山市 水産局, 「舟山漁業統計年報」

〈표 5〉는 舟山지역 265개 어촌을 대상으로 한 경영내용이다. 어업수입은 1990년대에 대폭 증가하여 1985년에 비해서 1996년에는 11배의 증가를 보였다. 어업생산력 증대(특히 평균톤수)에 의한 어획증가와 함께 수산물 시장의 확대에 따른 魚價 상승에 기인한 것이다. 평균어가는 1985년에 비해 1996년에 4배로 증가하였는데, 어종 구성의 변화는 있지만 모든 어종의 가

12) 일본 福岡 및 長崎 어시장에는 1980년 중반부터 중국산 선어가 수입되고 있는데, 최근 대부분 어종에서 소형화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海外漁業協力財團, 「海外漁業協力」, 第13號, 2000年1月, p.71.

13) 舟山지역의 어업경영에 대해서는 張航飛, 「中國·舟山地區における漁業構造の展開に關する研究」, 長崎大學水産學部 修士論文, 1998.을 참고하였다.

격이 대폭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어업지출은 어업수입과 연동하여 증가추세이지만, 1996년은 1985년에 비해 17배 증가하여 어업수입의 상승을 상회하였다. 이는 어선의 대형화, 어장확대에 따른 연료비와 어업기자재의 가격이 높아졌고, 노동력 부족에 따라 1인당 임금도 급증(5.4배 증가)하였기 때문이다¹⁴⁾. 또한 1990년대 새롭게 참여한 개인경영은 대부분 용자 및 타인자본의 조달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금리의 상승에 따라 그 변제금액이 늘었던 점도 관련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어업의 경영은 개인경영의 진전과 함께 어선세력 증대, 어가 상승을 배경으로 고수익을 향유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자원감소 및 어종의 저급화를 동반하면서 생산성 정체, 어업비용의 상승으로 인해서 종래와 같은 경영조건은 상실되고 있으며, 수익성이 1985년에 54%에서 1996년에는 28%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¹⁵⁾. 그렇지만 1990년대의 어업이익률이 30% 전후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업경영에 비해서 아직도 양호한 수익성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

Ⅲ. 어장이용 상황과 지역어업의 재편

1. 어업자원관리의 동향

중국은 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라서 어업생산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어업질서의 유지, 자원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들이 본격적·체계적으로 실시된 것은 개혁·개방이후 어업관련제도가 정비되면서였다. 어업제도는 1979년 「수산자원번식보호조례」, 1986년 「어업법」, 1987년 「어업법시행세칙」이 각각 제정되었다. 이들은 예전부터 각 지역 마다 존재하였던 어업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킨 것이며, 주요내용은 해면·내수면 양식업, 외해 및 원양어업, 수산가공업을 장려육성하고, 근해(연안역)에서 어업억제 및 수산자원보호의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¹⁷⁾. 해면어로어업에 대해서는 근해(연안역)의 조업규제 및 외해(근해역)로 진출, 주요보호대상어종의 지정, 치어 포획금지, 금어기 및 휴어기의 설정, 망목규제, 유해한 어구어법 금지 등이 규정되었다.

허가제도는 1979년부터 시작되어 어로, 어선건조, 양식업에 도입되었으며, 어로어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600마력 이상으로 외해에서 조업하는 저인망과 선망은 중앙정부, 그 이외는

14) 우수한 어업노동력은 일부 생산성이 높은 업종에 편중되어 있고, 또한 일본, 대만 등의 외국어업에 고용되어 업종간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 내륙지역의 노동력으로 보충하지만, 숙련도가 낮아 생산성 향상에는 이르지 못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15) 이에 더해 일본으로 수출되던 일부 어종의 어획감소와 元高円低에 의한 수출시장이 악화된 점도 수익성 하락의 원인이다.

16) 한국에 있어서 대형기선저인망과 대형선망의 이익률은 1980년 중반 약 20%대에서 1990년 중반에는 약 10%대로 떨어졌고, 일본에 있어서 이서저인망과 대중형선망은 1980년대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17) 중국의 자원관리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개발원, 「한중일간 어업자원정책 비교와 어업자원 관리방안 연구」, 1997. 國際漁業硏究會, 「世界の漁業管理 下卷」, 海外漁業協力財團, 1994.을 참고하였음.

지방정부(성, 자치구, 직할시)가 허가한다. 해역별로는 기선저인망조업금지선(=조업금지선) 이 원은 중앙정부, 내측은 지방정부가 관리하지만, 경제적으로 중요한 어종과 복수 지역에 의해 이용되는 어장은 중앙정부가 관리한다.

또한 1985년부터 황해와 발해에서 대한의 자원보호증식기금의 징수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1986년에 어업법의 제정에 따라 「資源保護增殖稅」로 명문화되어 일반 어업자원에 대해서도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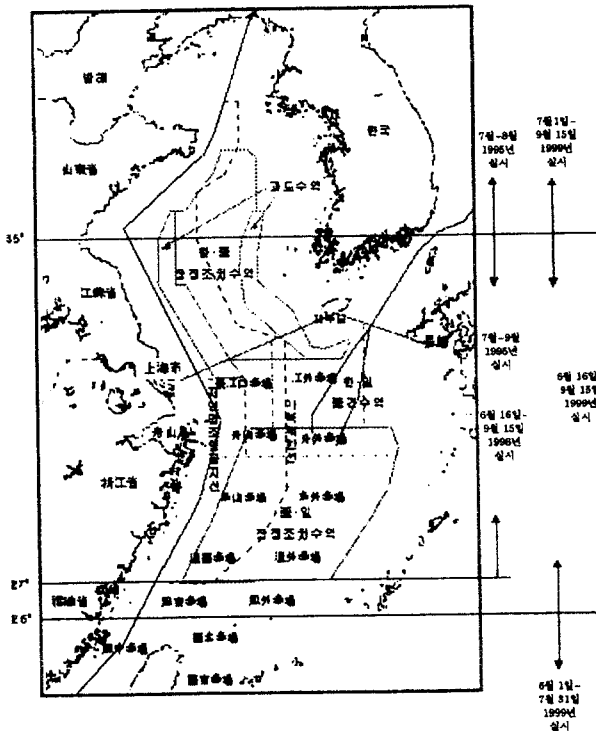
중국 어업자원관리에서 중요한 보호구와 휴어구는 1950년에 「조업금지선(모택동라인)」이 설정되었고¹⁸⁾, 1981년에는 「동중국해·황해 수산자원보호규정」에 의해 조업금지선 외측에 갈치, 부세, 병어 보호구가 설정되었고(4~7월 금어, 1982년 실시), 1988년에는 발해에서 저인망의 조업이 전면 금지되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 어업생산은 증산을 보여왔지만, 그와 동시에 어업자원의 급속한 약화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부터 어획능력의 억제, 업종전환(양식업, 수산가공업, 원양어업으로 전환), 금어기 등이 한층 강화되었다. 1993년에는 황해 북부(북위35도 이북)에 저인망 금어구(7~8월), 황해에 대해 보호구(3월10~30일), 동중국해

에서 보호구·휴어구 확대 및 갈치 금어기(5~6월)가 실시되었다.

한편, 이러한 규제 이외에 가장 중요한 조치는 1995년부터 하계 2개월간 전면금어가 실시되었던 점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북위 27도 이북은 7~8월 동안 저인망 및 張帆網의 조업을 금지하며, 조업금지선 북위 27도~35도 수역은 9~10월 동안 동쪽 30마일 이동하는 것이었다(그림 2).

이 금어조치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어업자원 감소에 따른 어업자의 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그 효과가 판명되었기 때문에 1998년에는 27도~35도 사이의 금어기간을 3개월간(6월16일~9월15일)으로 연장하였다. 더욱이 1999년부터는 35도 이북에서 2개월반(7월1일~9월15일)으로 연장하였



(그림 2) 동중국해의 중국어장 및 일제금어 제도와 新어업질서

18) 처음에는 국영기업의 저인망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1979년부터 대중어업의 발전에 따라 대중어업의 저인망에도 적용되었다.

고, 27도~35도 금어수역을 26도까지로 확대하였으며, 26도 이남 수역에서도 2개월(6월1일~7월31일) 동안 금어를 신설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어업자원관리 정책은 자원에 대한 국가 관할권이 강하고 일률적인 규제를 통해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에 의한 대규모적인 전면적인 금어의 실시는 어업허가가 권리로 서 성숙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기 힘든 독특한 관리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 어장이용 상황과 국별 이해관계

중국어업에서 보여지는 어업세력의 증강과 어장확대를 통한 어업발전은 당연히 동일한 어장에서 조업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어선을 압박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 근해에서의 조업을 증대시키는 과정이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국간 어업분쟁이 빈발하게 되었다.

중국 어선이 한국 근해에 진출하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며, 영해 및 어업자원보호 수역의 침범이 증가하였다.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의하면, 특히 1990년대에 대폭 증가하였는데, 1991년 영해침범 249척, 보호수역침범 620척, 1993년에는 영해침범 90척, 보호수역침범 572척, 1995년에는 473척, 868척, 1997년 254척, 125척으로 증가하여 어업분쟁이 격화되었다. 특히 1990년대의 중국 어선의 조업 증가는 양국의 국교정상화에 따라 어업관계가 모색되어졌고, 또한 말쥐치 감소에 대신하여 갈치, 조기 등의 어종전환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 근해에서의 조업은 1980년대 후반부터 현저하게 나타났다. 서일본수역(특히 쓰시마 주변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상황을 九州漁業調整事務所의 자료로 보면, 1990년에 저인망 4,154척(11~2월, 말쥐치), 선망 398통(3~5월 전갱이, 고등어, 정어리)으로 최고를 기록하였다. 그 이후 말쥐치 및 정어리의 감소로 인해 1994년에는 저인망 447척, 선망 18통이 조업하였다. 1996년에는 저인망의 증가(3,965척), 선망의 감소(6통), 새롭게 오징어 채낚기(206척)가 나타났다. 이것은 말쥐치와 정어리의 감소에 따라 오징어로 어획대상을 전환하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표 6〉 한중일 3국간 근해어업의 수역별 어종별 어획량 (단위 : 만톤)

		어획계	중국수역	한국수역	일본수역
중국어업	부어	120~130	65~70	50~65	
	저어	120~130	65~70	50~65	
한국어업	부어	23	0	17	6
	저어	40	12	25	3
일본어업	부어	32	3~8	5	19~24
	저어	4	1	0	3

- 주 : 1) 중일간 영토분쟁이 있는 釣魚 尖閣列島를 어느 나라에 편입시킬 것인지에 따라 수역별 어획은 차이가 있다.
 2) 한국과 일본은 업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였고, 중국의 경우는 동중국해의 위해만을 한정하여 생각하였다.

한편, 〈표 6〉은 동중국해·황해에서 조업하는 한중일 3국 근해어업의 수역별, 어종별 어획

량을 나타낸 것이다. 동중국해·황해는 수역의 폭이 400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선으로 수역을 나누고, 또한 부어(대중형선망)와 저어(저인망)로 구분하여 각국의 어업이 자국 및 타국수역에서의 어획상황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였다¹⁹⁾. 이를 통해 각국의 어장이용 상황과 EEZ 체제에 따른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 어업은 모두 자국수역에서의 어획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타국수역에서도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은 많은 적든 EEZ체제에 의한 영향을 직접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간선으로 수역을 획정하여 외국어선을 규제한다면, 어획량이 가장 많고 외국수역의 의존도가 큰 중국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규제를 받지만, 중국을 규제하려고 하는 양면적인 입장이 되는 반면, 외국수역의 의존도가 가장 낮은 일본은 한국과 중국을 규제하는 것이 자국어업 보호에 유리하게 된다.

셋째, 이것은 저어어업(저인망), 부어어업(선망)에 모두 적용되지만, 저어어업은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어획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선의 규제, 경우에 따라서는 자국어선에 대해서도 규제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부어어업은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어획경쟁도 적기 때문에 상호입어가 가능할 것이다. 즉, 상호입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자원특성과 상황에 따라서는 그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중국 어업은 저어, 부어 모두 주로 저인망으로 어획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방법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3. 국제어업질서의 구축과 영향

1996년 한중일 3국은 유엔해양법을 비준하고 국내관련법을 정비하여 12해리 영해, EEZ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은 양국간 어업협의를 거쳐 1997년 중·일, 1998년 11월 한·일 어업협정을 개정하였고, 2000년 8월 중·일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상호입어 및 조업조건을 마련하여 1998년 1월 한·일, 2000년 6월 중·일, 2001년 6월 한·중 어업협정이 각각 발효되었다.

이들 어업협정에서는 유엔해양법의 취지에 따라 EEZ를 설정하고(연안국주의), 영토문제, 실적확보 등으로 인해 경계가 미확정된 수역은 잠정조치수역, 중간수역, 과도수역 등의 잠정적인 수역이 설정되었으며(기국주의), 그리고 상대국 EEZ에 상호입어, 자원관리조치, 어업공동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新어업협정의 특징은 EEZ 경계획정과 분리하여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영토문제와 역사적 관계로 인해 대립하였던 수역에는 잠정적인 수역(잠정조치수역, 중간수역, 과도수역)이 설정되었는데²⁰⁾, EEZ와 잠정적인 수역 등에 대한 자원관리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칙적인 EEZ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업세력의 변화와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어 있었기 때문

20) 新어업협정에 관한 법적 성격은 최정운·최종화, "동북아시아 지역 국제어업협력체제의 구축과 운영방안", 「한국수산경영론집」, 제30권 제2호, 1999.를 참고하길 바람

에 잠정적인 수역은 각국이 주장한 EEZ가 중복하는 수역이 아니고 수역범위와 성격, 실적확보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新어업질서의 운용상황은 각국이 어업협정에 근거하여 상대국의 EEZ에 대해서 상호 입어를 실시하고 있지만, 폭 넓게 설정된 잠정적인 수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업조건 및 관리방법 등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종전과 동일한 어업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잠정적인 수역은 각국의 주권이 미치거나 서로 중복되는 수역이 존재하며 이들 수역의 관할을 둘러싼 대립이 있으며, 또한 2국간의 잠정적인 수역에 제3국 어선의 입어에 관한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동중국해에는 각국의 EEZ 이외에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 중·일 잠정조치수역, 한·일 중간수역이 복잡하게 설정되었고, 또한 한·중, 중·일간의 현행 조업유지수역도 설정되어 3국간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동중국해의 잠정적인 수역을 포함한 관계수역에 대한 자원관리, 상호입어, 어업질서 확립은 동북아시아 전체수역의 자원관리와 어업재편 방향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한편, 新어업체제에 따른 중국어업이 받는 영향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역을 완전히 분할한 경우와 비교해서, 한국과 일본의 EEZ에서 어획실적을 인정받았고 잠정적인 수역 등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어업타격은 완화되었지만, 종래와 같은 자유로운 어장확대 및 자원 이용이 상당히 제한받게 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IV. 중국 해면어로어업의 당면과제

1. 개인경영 진전에 따른 구조적 문제

중국어업의 발전을 담당한 것은 생산체제 개혁으로 등장한 대다수 개인경영이었다. 이들은 수산물 유통 및 시장확대, 수산물 소비 및 수출증대를 배경으로 어업생산력을 증강시켰고, 또한 최근 주식제도의 활성화에 따라 새롭게 어업에 대한 진입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경영의 확산에 따라 어업생산의 급격한 증대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개인경영의 발전 이면에는 과잉투자, 자원악화, 수익성 하락 등의 구조적 모순이 顯在化되어 고수익 의존이라는 경영의 존립조건이 상실되고 있다. 浙江省 象山縣을 예로 들면, 1990년대로 들어서 신규참입에 의한 어선 건조가 현저하게 나타나서, 1991년에 대형어선이 18척에 불과했던 것이 1994년 915척, 1996년에 1,406척으로 급증하였다. 그렇지만 이들 어업은 1996년 시점에서 약 30%가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과도한 설비투자에 의한 부채증가, 어업노동력 부족, 인건비와 유류비 등의 조업경비 상승, 경제성 어종감소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²¹⁾.

21) 寧波市水產學會·寧波市漁業經濟學會, 「寧波水產研究通訊」, 1998. pp. 21~24.

또한 저인망이 중심이 된 편중된 어업구조의 문제도 심각하다. 중국의 저인망은 저어 및 부어 양쪽을 어획하는 능률적인 어법이며, 고마력 어선은 대부분 저인망으로서 어업발전의 주력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신규참여를 하는 어업자들도 대부분 저인망을 선호한다. 하지만 저인망은 어획압력이 높기 때문에 자원에 대한 악영향이 가장 큰 업종이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어업세력의 삭감과 업종 전환 등을 통한 대응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에 대두된 어업구조 모순에 대응하여 다양한 어업정책이 수립되었다. 제9차 5개년 계획(1996~2000년)에서는 제8차 5개년 계획의 목표치(해면어업 동력어선 24만척, 1,020만마력)까지 어선척수, 마력수를 축소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1997년 7월부터는 신규 동력어선의 예외적인 심사를 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저인망, 정치망을 대상으로 무허가어선의 근절대책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999년의 어업신장 목표를 「제로성장」으로 결정하였고, 포획어선의 신규발주 금지, 어선의 갱신·개조를 통제하였다. 이와 아울러 연안해역의 오염, 해양생태계 보전을 총괄하기 위한 「해양환경오염법」도 제정하였다²²⁾.

이러한 일련의 어업정책 강화는 종래의 어업세력 증가를 제한하려는 정책의지를 표출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의 급속한 침투와 개인경영 진전, 지역별 분권화 및 지방주의 확대, 어업발전의 지역차 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2. 어업자원 악화와 관리체계의 한계

동중국해의 어업생산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척당 어획량도 1980년대 중반 일시적 감소를 보였지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어업자원은 대체로 양호하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종구성을 보면, 오히려 자원악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제적 가치가 높은 어종(조기, 부세 등)의 감소를 경제적 가치가 낮고 먹이사슬의 하위단계인 어종(새우, 게)과 부어(고등어, 가라지)로 대체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근해 어장의 자원감소를 외해어장(한국, 일본근해)으로 어장확대를 통해서 이를 보전하였던 것이다²³⁾.

또한 어획생산 자료의 수집에서 어획통계가 중복계산이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사회주의 체제의 잔재로서 어업생산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인위로 실제 어획량보다 많게 산정한다는 지적도 있다²⁴⁾.

이에 더해 중국의 자원감소 문제는 수산물 소비구조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중국에서는 수산물을 날것으로는(生食)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조리(튀김)를 하는 식문화이기 때문에 선도 및 크기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비구조가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그만큼 어류의

22) 한국해양연구소, 「중국의 해양정책에 관한 연구」, 1999.

23) 이러한 사실은 한국과 일본 저인망의 어획조성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각국의 자원학자들도 자원감소에 대해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國際漁業硏究會, 「世界の漁業-中國の水産業-」, 海外漁業協力財團, 1999, pp.73~77.

24) 梁振林, 「中國の漁業と資源管理の現狀」, 「東シナ海と黃海の生物資源」, 月刊海洋, 1999, pp. 654~655.

이용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주요자원이 감소하더라도 어획대상의 전환(저가격 어종), 소형어에 대한 어획압력의 증대를 통해서 어업증산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 자원관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일제금어가 1990년대 후반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중국처럼 국가 통제력이 강하고 어선척수, 어민수가 많은 상태에서는 효과적인 관리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어종을 중심으로 자원회복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²⁵⁾, 자원증가량이 당해연도에 거의 소진되거나 금어기 이후 집중적인 어획이 이루어짐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회복에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된다. 따라서 어획노력량의 삭감, 어업질서 확립 및 감시 강화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보완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1996년 유엔해양법을 비준함에 따라 TAC 시행이 당연한 과제로 되고 있다. 2000년 10월 어업법을 수정하여 TAC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2년부터 2어종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TAC는 어획노력량 관리에 비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긴 하지만, 자원평가, 어종별 및 어업별 할당, 어획보고 및 감시 체계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어업종류 및 어업체종이 복잡 다양하며, 이러한 전제조건이 아직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TAC 시행에는 많은 난관이 있으리라 보여진다. 또한 기존 자원관리의 틀 속에서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는 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3. 新어업질서 성립에 따른 생산력 확대 제한

동북아 수역에서 EEZ체제에 입각한 어업질서가 재편됨에 따라 국내외적인 어업재편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은 新어업협정의 협의에서 기국주의, 어획실적 존중, 넓은 잠정수역 설정 등을 주장하며 가장 소극적인 대응을 보여왔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중국 어업은 아직까지 고성장을 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과 비해 어업세력이 월등하게 높아 어업질서의 재편에 따른 타격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었다. 한국과 어업교섭에서 양자강 수역에서 한국어선의 조업금지를 주장하였고, 일본과는 중일 잠정조치수역 북쪽에 임시적인 EEZ 경계선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였으며, 新어업협정의 발효를 지연시켰던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에 있어서는 EEZ로 수역을 완전히 분할한 경우에 비해 한국과 일본과의 잠정조치수역, 과도수역 등이 넓게 설정되었고, 상호입어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어업피해는 그만큼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의 EEZ 입어에는 <표 7>에서와 같이 입어 척수가 대폭적으로 감축되었으며, 조업에서도 연안국주의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²⁶⁾. 또한 한국과 일본의

25) 海外漁業協力財團, 「海外漁業協力」, 第5號, 1998年 7月, pp.64~65.

26) 浙江省 寧波市에서는 중·일 어업협정에 의한 어장축소는 약 60%이며, 황해 및 제주도의 한국 수역에서 조업하는 저인망(2,000여척), 선망 등과 일본 수역에서 조업하는 오징어채낚기 등이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寧波市水産學會·寧波市漁業經濟學會, [寧波海洋水産研究], 1998.

〈표 7〉 한중일 3국의 상호입어 및 어획할당

	중국수역	한국수역	일본수역
중국어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6~2002.12 • -2,796척 164,40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6~12월 • -1,122척 70,000톤 • 2001년 • -1,222척 73,000톤
한국어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6~2002.12 • -1,402척, 90,00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 -1,664척 125,197톤 • 2001년 • -1,464척 99,773톤
일본어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6~12월 • -710척 70,800톤 • 2001년 • -575척 70,30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 -1,601척 93,773톤 • 2001년 • -1,459척 93,773톤 	

EEZ 조업에서는 조업실적이 감안되어 약 31만톤을 할당받았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표 6〉의 수역별 어획량에 비해서 약 70%나 감소된 할당량이다. 그리고 상호입어가 점차 등량주의로 될 것이고, 한국과의 과도수역이 몇 년후 EEZ로 편입되기 되기 때문에 어업타격은 크며 어업생산력의 확대를 대폭적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종래의 조업어장이 상실되고 우리나라와 일본수역에서의 조업규제 강화로 인해 일부 어선이 연안역으로 이동하여 조업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업종간의 분쟁, 자원악화가 한층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어업세력 삭감, 어업질서 확립 및 업종간 이해관계의 조정, 자원관리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V. 맺 음 말

동중국해의 중국 해면어로어업은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어업구조의 변화를 동반하면서 발전 속도가 가속되고 있다. 그 내용은 동력어선의 증가, 고마력화에 의한 근해(연안역)에서 외해(근해역)로 진출이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저서자원의 악화를 부어자원으로 대체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저어와 부어의 어종 구성도 크게 변화하였다. 또한 그 발전의 중심적 담당은 국영기업에서 개인경영으로 바뀌었으며, 업종은 생산력이 높고 저어와 부어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이 주도하였다.

중국 어업의 비교우위는 첫째, 이후 수산물 시장의 확대, 즉 가격자유화로 전환에 의한 여가상승과 저비용구조이다. 둘째, 중국어선은 집단조업체제를 확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압력으로 한국과 일본의 어선을 구축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 근해에서 조업을 확대하고 있다. 셋째, 자원이 감소하고 어체가 소형화하더라도 소형어를 소비할 수 있는 식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비용이 낮으며, 자원악화에 대한 적응력도 높다.

이상을 배경으로 하여 중국어업은 고수익을 누리왔지만, 최근 이러한 존립조건이 상실되면서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다. 개인경영의 진전에 따라 과잉투자, 어종구성의 악화가 진행되어 생산성이 정체하고 있으며, 임금과 조업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게다가 저인망이 중심인 편중된 어업구조가 자원감소를 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중국은 신규 어업허가의 억제와 연안에서 근해로 어장확대, 저어에

서 부어로 대상어종의 전환 등을 시도하고 있고, 일제금어기를 통한 자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한층 심화되는 과정에서 개인경영의 진전, 지역의 분권화, 어업발전의 차이로 인해 그 성과를 달성하기란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동북아 수역에서 EEZ체제가 성립됨에 따라 최대 어업국임과 동시에 외국수역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중국 어업은 어업재편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어업이 입는 피해는 수역을 완전히 분할한 경우에 비해서는 그 타격이 완화되지만, 新어업협정에 의해 어장이용이 크게 제한되었기 때문에 종래와 같은 자유로운 어획활동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어획노력량의 삭감, 업종간 이해조정, 자원관리의 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어업의 축소재편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어업을 둘러싼 국내외적인 상황변화와 新어업질서의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둔다.

우리나라 어업은 1980년대에 들어서 동중국해에서 근해어업을 중심으로 조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1990년대에는 정체하고 있다. 이것은 먼저 생산력의 고도화를 이룬 일본어업을 추월하였지만, 중국 어업의 대량 진출에 따라 그 발전이 제약받는 과정이었다. 한편, 이러한 생산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魚價 상승에 의해 경영이 존립하고 있었지만, 수산물 시장 개방, 자원감소, 임금상승 등으로 인해 그러한 존립기반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新어업질서의 구축은 중국 어업의 확대를 제한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일본 수역에서의 조업이 제한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과잉투자의 삭감(슬림화)과 수역별 업종간 조정, 어획노력의 축소(감척) 등의 어업구조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수역내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TAC를 근간으로 한 자원관리의 확충과 보완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어업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논리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어업교섭을 통해서 타국수역의 어획할당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수역에서의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감시함으로써 국내어업의 피해를 점진적으로 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동중국해에서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新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관리주체를 분명히 하여 자원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상호간 이해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자국의 EEZ 뿐 아니고 2국간의 조정, 나아가서는 동북아 수역 전체의 조정을 포함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리적으로나 어업여건에서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김대영, "동중국해·황해에 있어서 국제적 어업재편과 과제", 「수산경영론집」, 제30권 제1호, 1999.
- 최정운·최종화, "동북아시아 국제어업협력체제의 구축과 운영방안", 「수산경영론집」, 제30권 제2호, 1999.
- 한국해양연구소, 「중국의 해양정책에 관한 연구」, 1999.
- 中國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各年度.
- 寧波市水産學會·寧波市漁業經濟學會, 「寧波水産研究通訊」, 1998.
- _____, 「寧波海洋水産研究」, 1998.
- 農林部 東海區漁政漁港監督管理局 東海區漁業指揮部 「十周年專集 1987~97年」, 1996.
- 農業部水産局, 「中國漁業統計 1989~93年」, 1996.
- _____, 「中國漁業統計年鑑 1998年」, 1999.
- 日中漁業協會, 「中國の海區別漁業資源及び漁業の概要」, 1991.
- 國際漁業研究會, 「東アジア關係國の漁業事情」, 海外漁業協力財團, 1994, pp.85~130.
- _____, 「世界の漁業管理 下卷」, 海外漁業協力財團, 1994, pp.561~596.
- _____, 「世界の漁業」, 海外漁業協力財團, 1999, pp.49~82.
- 海外漁業協力財團, 「海外漁業協力」, 第5號, 1998.
- _____, 「海外漁業協力」, 第13號, 2000.
- 張航飛, 「中國·舟山地域の漁業構造の展開に關する研究」, 長崎大學水産學部 修士論文, 1998.
- 地域漁業學會編, 「漁業考現學 -21世紀への發言-」, 農林統計協會, 1998.
- 日本興業銀行産業調査部, 「中國産業」, 日本經濟新聞社, 1999.
- 金大永·片岡千賀之, 「東シナ海·黃海における國際的漁業再編」, 長崎大學, 1999.
- 梁振林, 「中國の漁業と資源管理の現狀」, 「東シナ海と黃海の生物資源」, 月刊海洋, 1999.

The Development of China's Marine Fisheries and Reorganization of Region Fisheries in the East China Sea

Kim, Dae-Young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the development structure of China's Marine Fisheries in the East China Sea. China's marine fisheries have developed since the 1980s along with its economic expansion. The total catch in the East China Sea has increased especially during the 1990s.

The Chinese fishery has developed remarkably through individual management, expansion of their fishing grounds from inshore to off-shore, and increase of the catch in both pelagic and bottom species. In other words, the trawl fishery in China has led to higher production. We can say that the progress in Chinese fisheries is the result of their expansion policy. Their boats have been coming closer and closer to the Japanese and Korea's fishing grounds during the 1990s.

Chinese fisheries is exploiting the low cost and thus strengthening its quantity. Based on rising fish price, expanding domestic fish markets as well as exports, China is enjoying the high income. However, in trawl fishery, productivity is stagnant and profit is going down due to the rising cost.

In accordance with the new 200 mile EEZ system in the East China Sea, China's fisheries will be restricted mostly by the new regulation which requires the reduction of fishing efforts and the application of resource management.